

ODA로 지원하는 일본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 확대 전략

-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ODA를 활용한 지원 정책을 강화
-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ODA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하며, 개도국이나 일본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ODA 활용

- 일본 정부는 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
 - 폐기물을 재료로 한 퇴비제조기, 수처리장치, 휠체어와 같은 환경·복지 등 8개 분야의 제품을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판로 확장
 - 시범사업으로 1~2년간은 현지 정부기관 등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수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전략
- 2013년도 ODA예산 20억 엔을 사용하여 샘플을 만드는 설비와 기자재의 구입, 현지에서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 외무성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경제산업성·중소기업청·JETRO·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이 이에 협력
- 아베 정부의 중요 시책인 ‘지방 중시·지역 재생’을 통한 경제성장 및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DA로 중소기업을 지원
 - 일본국내의 부진한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과 기술을 개도국의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일본경제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전략

□ 정책 목적과 사업 내용

-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제품 판매를 위해 정부가 ODA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해외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상대국에서 인맥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판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기존의 ODA 안건들은 도로건설 등 인프라 정비가 중심이어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내재
-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들도 ODA 안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의 시즈를 조사하여 개도국의 민생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지원정책을 강화
- 지원정책의 목적은 일본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아프리카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을 확보하는 것
-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수처리·공급시스템을 전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을 정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국가에 판매
- 상대국 정부기관에 위생적인 수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무상자금협력이나 기술협력의 틀을 활용
- 생수 판매업체와 협력하면 민간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ODA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

< ODA로 수출을 지원하는 제품 사례 >

분야	제품
환경·에너지·폐기물 처리	폐기물을 활용한 퇴비제조기, 절전형 수력발전기, 환경배려형 화장실, 우량감시 시스템
물 정화·처리	태양광발전기 수처리 장치, 수질측정기, 정수기, 지하수 오염 정화제
직업훈련·산업육성	연삭반, 공작용기기, 작업공구, 자동조작기기
복지	휠체어, 리허빌리테이션용품, 간병기자재
농업	수리펌프, 수확용 기계, 정미기, IT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의료보건	X레이 진단장치, 치과기기, 백신 등 정온수송용기
교육	교재, 실험기구 등
방재·재해대책	재해방지장치, 가설용 조명기구, 재해구조용 기자재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이나 사업소에서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원료로 퇴비를 제조하는 기계 등의 분야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
- 쓰레기처리장치는 논밭의 관개용 펌프 등 농기계와 일괄 판매도 가능
- 방재대책 분야는 모래·눈사태를 방지하는 장치 등을 계획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OD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내수침체로 약화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 해외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일본경제-중소기업-개도국’ 3자가 Win-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 일본에 비해 ODA규모도 작고, KOICA에 의한 사회공헌활동 중심인 ODA사업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KSP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신흥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BOP 비즈니스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3.8.13)